

## 건축계 소식

###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 착공식 개최 경상남도건축사회 설계지원



11월 2일 경남 산청군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의 첫 삽을 떴다. 산청군 주민들과 지역 전문가 단체장들, 교육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해 공립지역아동센터 설립을 반겼다.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와 SBS, 초록우산어린이재단,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후원하는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 착공식이 개최된 것이다.

최근 농촌가정의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농촌지역도 방과 후 아동들의 돌봄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여건이 취약하여 민간 교육시설도 낙후된 실정이었다. 하지만 세수 적자에 허덕이는 중소 농촌도시가 자체적으로 교육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이하 아동센터)는 최근 이러한 실정에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아동센터는 산청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경상남도건축사회 조용범 회장의 재능기부와 SBS의 미디어 홍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KLPGA

의 현금기부로 세워진다. 지난 3월 산청군이 보건복지부에 공립지역아동센터 설치를 건의하여 7월 SBS 등이 후원하는 대상으로 산청군이 확정됐다. 7월 30일 후원단체인 SBS와 경상남도건축사회 관계자가 현장방문 후 8월 17일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설계를 진행했다. 아동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200㎡로 사무실과 조리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지역아동센터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가 상시 근무하게 되며, 내년 3월에 준공식을 갖고 민간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센터건립사업은 SBS 희망TV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SBS는 이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와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학교건립사업(잔지바르 프로젝트) 등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산청군공립지역아동센터는 희망학교건립 사업의 일환인 것. 대한건축사협회는 SBS의 희망학교건립 100번째 사업인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중등학교 건립사업의 설계와 사업비 모금 등을 지원한다. 단순히 건물을 지어주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기회가 절실한 아프리카 아동들에게 학교를 건립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콘텐츠를 함께 보급해 가난과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는 희망의 동지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단발적인 현물지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현재 현지 조사를 마치고 김호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부회장(주.아도스 건축사사무소)이 설계 재능기부를 맡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이외에도 건축사 1인 1만원 기부 캠페인(국민은행 484237-01-008320)으로 사업비 지원에 나선다. 협회는 이 사업을 계기로 전문가 단체의 재능기부와 기부문화를 정착해 미래인재육성사업과 사회공헌사업에 힘쓰는 방침이다.



### 대한건축사협회, '2015최우수 공공서비스대상' 우수기관 선정

매경미디어그룹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 하에 올해로 3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서비스 대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매년 상을 수여하고 있다. 매경미디어그룹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 관련 정책 및 법령을 연구하며 이를 관련부처에 제안함으로써 건축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며 "다양한 건축문화 진흥행사와 함께 2017년에는 UIA 서울 세계건축대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강호인<사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월 12일 별도 취임식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강 장관은 27년간 공직생활을 한 '경제동'으로 미시와 거시부문 모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1957년생으로 경상남도 함양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 후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 예산총괄과 사무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재정정책심의관 ▷기획예산처 재정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차관보 ▷조달청장 등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 올랐다.

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과 '정확한 통계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획된 공공임대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주거급여 등의 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며 "중산층이 오랜 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뉴스테이)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마음애티눔 사업 '건축소량'



부산건축사회가 11월 4일 부산시 사하구 감전동에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집고치기 '건축소량'은 부산건축사회가 추진하는 '마음애티눔'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재능 기부 프로젝트이다.

### 제4회 어린이건축창의교실 성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후원하는 '제4회 어린이건축창의교실(이하 창의교실)'이 11월 6일과 7일 양일간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초등학생 120명의 웃음꽃과 함께 성료됐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의 초등학생 4~6학년 120명을 선발해 팀제로 1박2일 동안 ▷건축역사현장 답사 ▷한옥 및 전통 목수체험 ▷명사특강 ▷건축창의 경진대회(자연재료와 찰흙으로 공간 구성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활동 우수팀에게는 국가건축정책위원장상, 국토교통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이 수여 됐다.

## 공 고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제1항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신희락 회원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제10회 이사회(15.10.20)에서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소속 : 충청북도건축사회

나. 성명 : 신희락

(1971.01.10생 / 회원번호 MI-III08)

다. 사무소명 : (주)디자인그룹이오가 건축사사무소

라. 징계결정 : 제명(재심청구 기각)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54조제1항 및 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에 따라 김기정 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가. 소속 : 충청북도건축사회

나. 성명 : 김기정

(1968.11.05생 / 회원번호 MI-09785)

다. 사무소명 : 건축사사무소 기정

라. 징계결정 : 제명

- 충청북도건축사회 이사회: 2015.10.13

- 본협회 제11회 이사회 : 2015.11.18

※ 정관 제55조의2(징계사항의 고지) 협회는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2015 인천건축문화제



2015 인천건축문화제가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됐다. 인천광역시 건축상과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되었고 그린에너지 체험관 등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으로 눈길을 끌었다.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12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올해로 제12회 짝을 맞은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광주광역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됐다. 건축공모전 전시 및 건축민원 및 취업 지원 상담 등 시민 참여행사 등이 진행됐다.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어린이 건축교실' 진행



울산건축사회가 11월 6일에 신정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어린이 건축교실 - 나는야 꼬마 건축사' 행사가 열렸다. 어린이들이 건축사들과 함께 직접 만든 건물 모형으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다.

## 전라북도건축사회 제16회 전라북도건축문화제



11월 5일 전북대학교에서 전라북도건축문화제 건축문화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이날 송하진 전북도지사 및 전병갑 전북건축사회 회장, 이시카와 유키오 일본건축가협회 가고시마회 회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 신간 소식

### 정이숙 본지 편집위원 신간 소개 '응답하라 독수리다방'



정이숙 지음 | 동아아시아

본지 편집위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정이숙 대표의 신간 감성복고 에세이를 소개한다.

80년대 청년들의 진짜 일상을 담은 복고 에세이! 국가에 의한 폭력은 공공연했고 경찰은 학교에 들어와 대학생들을 감시했다. 흔히 '암울했다'고 일컬어지는 80년대의 모습이다. 당시 '청년문화'를

주도했던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것은 청바지와 통기타 그리고 학생시위 행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데모'만 하지도 않았고 음악다방에서 노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지도 않았다.

당시 청년들이 살았던 일상의 구체적인 장면을 우리는 너무 모른다. 어쩌면 지금은 중년이 된 '80년대 청년들'은 여러 미디어에 의해 하나의 이미지로 박제되어 가두어져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1983년, 저자가 대학에 입학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80년대의 청년문화와 대학문화, '80년대 청년들'의 유년시절과 취업 이후의 이야기 등 자신의 이야기인 듯 아닌 듯 은근하게 풀려나가는 이야기의 실태라는 어떤 '입장'에 전유되지 않은 채, 그저 당시를 살았던 당사자의 주체적 시선으로 80년대 이야기를 들려준다.